

소견서

대한환경공학회 제25대 회장 후보자 박 기 영

존경하는 대한환경공학회 회원 여러분께,

환경공학인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깊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환경공학회 제25대 회장 후보자로서,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중심의 대한환경공학 학회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학회와 함께 걸어온 길

199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저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지역환경 연구센터 (1998-1999), 미국 Iowa State University 토목건설공학과 (2001-200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공정연구부 (1998-2004), 그리고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2004-현재)에서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며,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대한환경공학회에서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2014-2015), 교육위원회 위원장(2024-현재), 자원순환위원회 위원장(2018-2019), 미세조류활용기술 전문가 그룹 부위원장 및 위원장(2014-2025), 그리고 회원 및 부회장으로서 총 30여년간 학회의 다양한 운영 분야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인증 기준 정비 (KEC2015, KEC2024) 등 환경공학 교육 기반 마련에 힘썼으며, 미세조류 (우수전문가그룹상 수상, 2023) 및 폐기물 관련 연구 (논문상, 2020)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학술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회의 운영 구조와 과제, 구성원의 기대, 환경공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사회적 기여의 접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 왜 지금, 학회의 도약이 필요한가?

환경공학은 이제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물보전, 미세먼지, 자원순환, 화학물질 관리, 생태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환경 이슈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지금, 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지역 편중, 학술지의 경쟁력 정체, 젊은 연구자와 산업계 인력의 이탈, 환경공학 전공의 위축, 그리고 사회적 위상 저하 등 여러 도전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실을 다

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학회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회원 중심의 환경공학회'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3 제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학회의 모습

(1)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환경공학

학술 및 연구 활동의 편중된 지역 구조를 벗어나 대한환경공학회 지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회를 중심으로 지역 순회 춘계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관 지역 네트워크를 조직화해 지역 환경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2)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환경 가치

학회의 성과가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환경공학 명예의 전당'과 같은 공공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언론 등을 통한 환경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강화해 투명한 정보 공유와 정책 참여 유도하는 환경공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학술 역량

대한환경공학회지(JKSEE)의 Scopus 등재를 추진하고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편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문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 학술 교류 및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제안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산업계 및 지역 연구성과 유입 확대, 이슈의 공론화와 지속 교육을 위한 특집호 기획, Hybrid 저널 구조 도입 등을 통해 저자와 독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 전문성과 함께, 빛나는 환경공학인

환경공학 전공 감소, 학문 정체성의 불분명, 산업과 교육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환경공학회 10년 중장기 전략(Master Plan)'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선, 학문 간 차별화, 학계-산업계 협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는 녹색산업의 전환에 학회가 앞장서 환경 분야 리더로서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업과 함께, 녹색 일자리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기에 학회가 녹색산업 인재육성과 기반 조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계 녹색 시장을 선도할 녹색기술 개발과 유망 녹색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환경산업 종사자들이 사회적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캠페인, 직무 홍보 콘텐츠, 산업계-학계 연계 멘토링 및 세미나 등을 확대하고, 청년 연구자, 중견 전문가, 퇴직 전문가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 함께하는 변화, 신뢰받는 학회

저는 모든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학회를 지향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 디지털 기반의 회원 중심 운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회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학회의 발전은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저 박기영은 실천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성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학회의 성장은 곧 환경공학자의 자부심입니다.

25대 회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회원 중심, 국민 공감, 글로벌 환경공학회”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한환경공학회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중심의 미래지향적 학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섯 걸음

				
(1)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환경공학	(2)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환경 가치	(3)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학술 역량	(4) 전문성과 함께, 빛나는 환경공학인	(5) 산업과 함께, 녹색 일자리 생태계 조성